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김성민⁺ · 이명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명예교수

A Study on the Effects of Wearing of a Black Dress and Accessories on Image Perception

Sungmin Kim⁺ · Myoung-Hee Lee

Lecture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14. 2. 24, 심사(수정)일: 2014. 3. 25, 게재확정일: 2014. 5. 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image perception,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age and income inferences according to the wearing of accessories with black dress. A quasi-experimental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experimental design was a 2×3×3(necklace×earrings×corsage) factorial design. The subjects were 610 female college students residing in Seoul. The model in the stimulus photographs was a woman with straight long hair. She wore a black one-piece dress with round neckline and short sleev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wearing of a necklace enhanced individuality, attractiveness, and cuteness in women. Professionalism and individuality were heightened when she wore an earring. The red corsage enhanced individuality, but it had a negative effect in professionalism. As for the effect on interaction, attractiveness was more highly perceived when both necklace and large earrings were worn without a corsage. The absence of both necklace and earrings led to a low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attractiveness, and individuality. The wearing of a necklace was more strongly linked to older age and high income than not wearing it, and it was perceived as more youthful if earrings were not worn. As for interactions, the wearing of small earrings and a red corsage was linked to the oldest age.

Key words: accessory(액세서리), corsage(코사지), earrings(귀걸이), image perception(이미지 지각), necklace(목걸이)

I. 서론

액세서리의 역할은 옷차림 시 전체적인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착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액세서리는 귀족적이고 화려한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으며¹⁾, 능력과 품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²⁾ 또한 1920년대 샤넬에 의해 소개된 코스튬 주얼리(costume jewelry)는 리틀 블랙 드레스와 같은 단순한 클래식 의복과 함께 착용됨으로써 의상의 단순함과 평범함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여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³⁾ 이와 같이 액세서리는 검정 의복에 액센트를 주어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검정은 주위의 색을 돋보이게 하는 주목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⁴⁾, 액세서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바탕색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는 상호보완적인 착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복의 색 중에서 검정색이 지닌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으며, 검정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복의 색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검정 의복은 세련된 여성 의상, 단순성과 현대성을 상징하는 특성을 나타냈으며, 디자이너들에 의해 클래식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⁵⁾ 실제로 2000년 이후 레드 카펫 패션 스타일의 드레스 색채 중 검정 드레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⁶⁾, 의복 색채로 검정과 같은 무채색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검정은 모든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의복 색채가 되었으므로 클래식 아이템으로서의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걸이는 착용자의 능력과 품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액세서리로 연구되어 왔고, 귀걸이는 젊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액세서리로 착용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⁸⁾ 코사지는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에 자주 착용되는 액세서리⁹⁾이므로 본 연구의 변인으로 선택하여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의

변화가 여성의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자로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고,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파악하며,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액세서리 착용시 선호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목걸이 착용과 이미지

목걸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액세서리 착용실태와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조기년¹⁰⁾의 연구에서 직장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였으며, 액세서리 착용에 의하여 가장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는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가 5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지가 27.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신주동, 최종명¹¹⁾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소유한 액세서리는 귀걸이-목걸이-반지-헤어핀-시계-팔찌-헤어밴드-브로치-발찌 순이었고, 착용 빈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귀걸이-목걸이-반지의 순으로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걸이는 귀걸이 다음으로 여대생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고 착용 빈도 또한 높은 액세서리임을 알 수 있다. 최수경¹²⁾의 연구에서 20대 여성과 미혼 여성이 착용 빈도가 높은 액세서리는 목걸이, 귀걸이, 헤어 액세서리, 시계로 나타났는데, 직업에 따른 액세서리 착용에 차이가 나타나 귀걸이, 헤어 액세서리, 시계는 학생이 높은 착용 빈도를 보인 반면 목걸이는 사무직 여성이 높은 착용 빈도를 보였다. 또한 품위 있고 현시적인 의복이미지를 추구하려는 여성은 목걸이의 착용 빈도가 높았다.

장신구 착용에 대한 연구¹³⁾에서 큰 목걸이 및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작은 목걸이 및 작은 귀걸

이를 착용하거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능력 있게 보였으나 품위는 낮게 지각되었다. 또한 검정색 재킷에 큰 장신구를 착용하였을 때는 가장 능력 있게 지각되었으나,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신구의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¹⁴⁾에서 목걸이는 '여선생님답다'라는 항목이 높게 평가되어, 목걸이가 여자다움을 의미하는 액세서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액세서리 이미지에 관한 연구¹⁵⁾에서 이미지는 전문성, 귀여움성, 여성성, 매력성, 개성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목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여성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전문성과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또한 40대가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20대가 착용했을 때보다 전문성과 여성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목걸이는 여대생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착용 빈도가 높은 액세서리이며, 목걸이 착용에 따라 여성성, 능력, 품위, 전문성, 연령 등이 다르게 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귀걸이 착용과 이미지

귀걸이에 관한 선행연구¹⁶⁾에서 귀걸이는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액세서리이며, 일인당 평균 13.9개의 귀걸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67%가 항상 귀걸이를 착용하며, 9.2%는 자주 착용한다고 하였으므로 76.2%의 여대생들이 귀걸이를 매우 자주 착용한다고 하였다.

한명숙¹⁷⁾의 연구에서 귀걸이는 '여학생답다'와 '여선생님답다'가 높게 평가되어 여자다움을 나타내는 액세서리로 나타났다. 윤영애¹⁸⁾의 연구에서 귀걸이의 이미지는 매력성, 귀여움, 화려함, 부드러움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귀걸이 형태 중 라인형이 밀착형보다 더 매력적인 이미지로, 밀착형 귀걸이가 라인형보다 더 귀엽고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또한 귀걸이 재료 중에서는 금, 은, 플라스틱에 비해 진주가 가장 매력적이며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전체 자극물 중에서 다이아몬드 밀착형이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플라스틱 라인형은 매력적이지는 않으나 가장 귀엽고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금소재의 밀착형은 가장 귀엽지 않은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은소재의 밀착형과 진주 밀착형은 가장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명희, 송원영¹⁹⁾의 연구에서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개성, 매력, 역능성, 귀염성, 품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귀걸이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귀걸이는 젊은 여성들이 자주 착용하는 액세서리로 의복과 상호작용하여 이미지가 달리 나타나며, 귀걸이 착용에 의하여 여성적이며 발랄하고 젊어 보이는 이미지가 추구된다고 하였다. 최수경²⁰⁾의 연구에서는 발랄하고 캐주얼하며 젊어 보이는 의복이미지나 청순하고 발랄하고 귀여운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은 귀걸이의 착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진, 최수경²¹⁾의 연구에서 큰 귀걸이를 했을 경우와 로우네크라인일 때 각각 주의집중성, 매력성이 높게 나타났고, 중간 크기의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네크라인에 따라 주의집중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걸이의 효과는 독립적인 영향보다 다른 요소와의 조합을 통해서 상승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에서 볼 때 귀걸이는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액세서리로서 얼굴에 가깝게 착용되어 이미지 지각에 있어 의미있는 단서로 작용하며, 개성, 매력, 역능성, 귀염성, 품위, 화려함 등의 요인에 영향을 주었다.

3. 코사지 착용과 이미지

코사지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관련 연구로 의복의 장식 유형에 따른 조사연구가 더러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꽃 장식에 관한 선행연구²²⁾에서 코사지로 주로 사용되는 꽃은 장미(59.9%), 튜피페(16.2%), 카네이션(12.7%)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선호되는 색채는 분홍(43.8%), 흰색(24.6%), 빨강(24.6%)의 순이었다. 장미는 분위기에 맞는 색채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오중은²³⁾의 연구에서 신세대는 코사지를 청채킷이나 티셔츠와 같은 캐주얼 의복에 착용함으로써 타인의 시선을 끌고 고정관념을 깨려는 시도로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여성적인 프릴과 레이스로 장식된 옷에

코사지를 달았을 경우는 촌스럽고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김일분, 유태순²⁴⁾은 의복이미지와 디테일 요소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코사지는 유행성과 품위성 이미지를 높이는 반면, 활동성 이미지는 저하시키는 장식이라고 하였다. 이미연²⁵⁾의 웨딩드레스 장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허리에 꽃장식이 있는 드레스는 고전적인 이미지로, 허리에 리본장식이 있는 웨딩드레스는 현대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경림, 박숙현²⁶⁾은 의복의 모던 이미지를 섹시모던, 엘리전트모던, 내추럴모던, 매니쉬모던, 미니멀모던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엘리전트모던을 제외한 4개의 모던 이미지 요인에서 장식이 없는 것이 더 모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엘리전트모던 요인에서만 장식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던하면서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디테일이나 트리밍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코사지는 장미가 가장 선호되며, 의복 위에 직접 착용되어 의복과 색상대비를 이루면서 개성, 활동성, 고전적 이미지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원을 조사한다.

둘째, 액세서리(목걸이, 귀걸이, 코사지)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한다.

셋째,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준실험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은 검정 드레스를 착용한

여성의 상반신 형태로 액세서리의 종류에 따라 변화시킨 것이다. 요인설계는 2×3×3의 설계로 독립변인은 검정 드레스와 함께 착용한 목걸이(2), 귀걸이(3), 코사지(3)이다. 목걸이 변인은 목걸이 착용과 목걸이 비착용으로 정하였고, 귀걸이는 작은 귀걸이, 큰 귀걸이, 귀걸이 비착용의 경우를 포함하였다. 코사지는 빨강 코사지, 흰색 코사지, 코사지 비착용의 경우로 정하였다. 목걸이 형태는 지름 0.9cm의 진주 한 줄로 이루어진 짧은 진주 목걸이였다. 작은 귀걸이는 귓볼에 밀착되는 지름 1.2cm의 스테드(stud)형 진주 귀걸이였고, 큰 귀걸이는 지름 0.9cm의 진주 1개에 2.7cm 길이의 물방울 모양이 늘어진 드롭(drop)형 진주 귀걸이로 정하였다. 코사지는 지름 7cm 크기의 둥근 꽃모양이었다.

지각대상자인 자극물의 모델은 타원형 얼굴로서 헤어스타일은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긴 생머리 스타일²⁷⁾이었다. 의복은 라운드 네크라인과 쇼트 슬리브로 이루어진 검정 드레스를 착용하였으며, 배경은 연한 하늘색이었다. 자극물은 모델이 실험의복을 착용한 모습의 사진을 제작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액세서리의 종류에 따라 변화시켰다. 사진은 허리 위 5cm 지점까지의 상반신 모습이었으며, 10cm×15cm 크기의 칼라 사진으로 출력하였다. 총 18개의 사진이 사용되었으며, 사진 자극물은 1~18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림 1>의 자극물은 모델이 목걸이, 큰 귀걸이, 흰색 코사지를 착용한 모습이다.



<그림 1> 자극물

질문지는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자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미지 지각을 조사하는 측정도구는 7점 의미분척도 27개 문항이었으며, 선행연구²⁸⁾를 참고하여 문항을 택하였다. 자극물의 연령 추론을 위하여 제시된 자극물을 관찰하고 연령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극물에 대한 가정의 월 소득 추론을 위하여 선택형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700만원 미만, ⑥ 700만원-900만원 미만, ⑦ 900만원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피험자의 연령을 조사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여대생 610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3월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9세 이하가 226명(37.0%), 20세~21세가 221명(36.2%), 22세~23세가 112명(18.4%), 24세 이상이 51명(8.4%)이었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고 통계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검증,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지 지각을 평가하는 의미분척도 형용사 27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5개 요인을 택하였다. 각 요인에서 부하량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항을 요인별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1차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내용과 문항이 일치하지 않는 3개 문항을 제외하고 24개 문항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요인이 선택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전문성, 요인 2는 개성, 요인 3은 여성성, 요인 4는 매력성, 요인 5는 귀염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5개 요인은 고유치가 2.48 이상이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11 이상이며, 누적변량의 총 백분율은 61.26%였다. 추출된 5개 요인의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는 .708 이상으로서 신뢰도가 만족할 만 하였다.

<표 1>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요인 1. 전문성	요인부하량
지성적인 - 비지성적인	.749
책임성 있는 - 책임성 없는	.726
성공적인 - 성공적이지 않은	.685
이성적인 - 감성적인	.614
모던한 - 모던하지 않은	.602
전문직같은 - 전문직같지 않은	.531
자신감있는 - 자신감없는	.516
변량 = 15.40% 누적변량 = 15.40%	
고유치 = 3.70 α 신뢰도 = .785	
요인 2. 개성	요인부하량
강렬한 - 무난한	.828
독특한 - 평범한	.809
섹시한 - 섹시하지 않은	.702
개성있는 - 개성없는	.581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430
변량 = 13.72% 누적변량 = 29.12%	
고유치 = 3.29 α 신뢰도 = .810	
요인 3. 여성성	요인부하량
상냥한 - 무뚝뚝한	.695
여성적인 - 남성적인	.665
낭만적인 - 낭만적이지 아닌	.619
부드러운 - 딱딱한	.598
따뜻한 - 차가운	.544
변량 = 10.95% 누적변량 = 40.07%	
고유치 = 2.63 α 신뢰도 = .769	
요인 4. 매력성	요인부하량
매력있는 - 매력없는	.765
세련된 - 촌스러운	.677
도회적인 - 도회적이지 않은	.555
멋있는 - 멋없는	.411
변량 = 10.86% 누적변량 = 50.93%	
고유치 = 2.61 α 신뢰도 = .820	
요인 5. 귀염성	요인부하량
짧어 보이는 - 성숙한	.798
귀여운 - 귀엽지 않은	.781
발랄한 - 점잖은	.552
변량 = 10.33% 누적변량 = 61.26%	
고유치 = 2.48 α 신뢰도 = .708	

이상에서 결정된 5개 요인은 요인의 문항 점수를 합하여 문항 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이미지 지각의 차이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목걸이 착용은 전문성, 여성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개성, 매력성, 귀염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균치를 보면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보다 개성과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개성이 낮게 지각된 선행연구²⁹⁾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귀염성 차원에 있어서는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

보다 더 귀여운 모습으로 지각되었다. 선행연구³⁰⁾에서 목걸이는 학생보다 사무직 여성에게서 더 높은 착용빈도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은 주로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으로 지각되어 귀염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귀걸이 착용은 여성성, 매력성, 귀염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전문성, 개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균치와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검토한 결과, 전문성 차원에 있어서 작은 귀걸이와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전문적인 모습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주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은 귀걸이의 형태와 상관없이 능력 있고 지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는 윤영애³¹⁾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개성 차원에 있어서는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 개성이 가장 높게 지각되었고, 그 다음 작은 귀걸이, 귀걸이 비착용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개성적이며 능력 있게 지각되었다는 선행연구³²⁾ 결

<표 2>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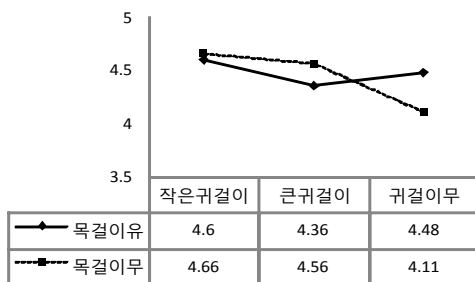
변량원		df	전문성 F	개성 F	여성성 F	매력성 F	귀염성 F
목걸이(A)		1	.18	31.88**	3.17	6.56*	21.35**
귀걸이(B)		2	7.14**	2.96*	1.91	2.55	2.63
코사지(C)		2	7.67**	13.88**	1.34	2.31	2.56
A×B		2	6.01**	.24	3.26*	4.40*	.67
A×C		2	.09	.45	.62	2.14	.21
B×C		4	.64	1.79	.23	1.58	.44
A×B×C		4	1.48	4.40**	.91	2.75*	1.15
집단 내 오차		592					
변인	속성	N	M	M	M	M	M
목걸이	유	270	4.48	3.02	4.28	3.70	2.84
	무	340	4.44	2.56	4.42	3.46	3.27
귀걸이	작은	194	4.63 ^a	2.78 ^{ab}	4.41	3.67	3.00
	큰	209	4.48 ^a	2.89 ^a	4.42	3.65	3.01
	무	207	4.27 ^b	2.63 ^b	4.23	3.39	3.22
코사지	빨강	206	4.32 ^b	3.07 ^a	4.37	3.56	3.22
	흰색	206	4.42 ^b	2.65 ^b	4.43	3.47	3.01
	무	198	4.64 ^a	2.56 ^b	4.26	3.69	3.00

* $p < .05$, ** $p < .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과와 유사하였다.

코사지는 여성성, 매력성, 귀염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전문성, 개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균치를 검토한 결과, 전문성 차원에 있어서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빨강 코사지나 흰색 코사지를 착용한 모습보다 전문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속이나 보석류로 만들어진 브로치와 달리 코사지는 꽃을 소재로 한 조화나 생화로 만들어진 액세서리이며, 보통 결혼식이나 행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전문적인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개성 차원에 있어서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흰색 코사지를 착용하거나 코사지가 없는 경우보다 더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것은 빨간색 계열의 문양이 현시성이 높게 평가된 선행연구³³⁾ 결과와 유사하며, 빨강이 강렬함과 색시함을 연상시키는 색채라는 조필교, 정혜민³⁴⁾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또한 빨강 코사지는 의복에 비해 비중은 적지만 검정 드레스 위에 착용됨으로써 빨강의 색채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에서 전문성, 여성성, 매력성은 목걸이와 귀걸이 착용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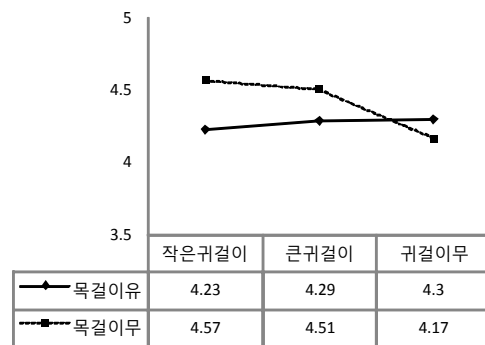


〈그림 2〉 전문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그림 2〉에서 큰 귀걸이를 한 경우는 목걸이를 하지 않은 채 귀걸이만 했을 때 전문성이 높아졌으나, 작은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목걸이 착용여부에 영향 받지 않고 전문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목걸이만 했을 때는 전문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목걸이마저 하지 않았을 때는 전문성이 매우 떨어졌다. 이는 목걸이 착용이 능력 요인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명희, 강승희³⁵⁾의 연구 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그러나 큰 귀걸이를 한 경우,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오히려 전문성이 낮게 지각되어 앞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도한 액세서리 착용이 전문적인 이미지를 낮게 지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목걸이 없이 귀걸이만 착용하거나,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작은 귀걸이를 착용하거나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액세서리 착용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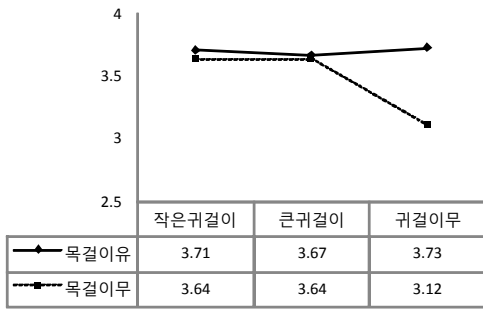
〈그림 3〉은 여성성 평가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로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보다 여성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즉 목걸이를 하지 않은 채 작은 귀걸이만 한 모습이 가장 여성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큰 귀걸이만 한 경우도 여성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었다.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귀걸이의 크기나 착용여부에 따라 여성성 평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귀걸이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그림 3〉 여성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그림 4〉는 매력성 평가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로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귀걸이의 형태나 착용여부에 영향 받지 않고 유사한 수준의 매력성을 나타내었다.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귀걸이와 작은 귀걸이의 착용이 동일한 수준의 매력성을 나타내었으나, 목걸이와 귀걸이를 둘 다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매력성이 매우 낮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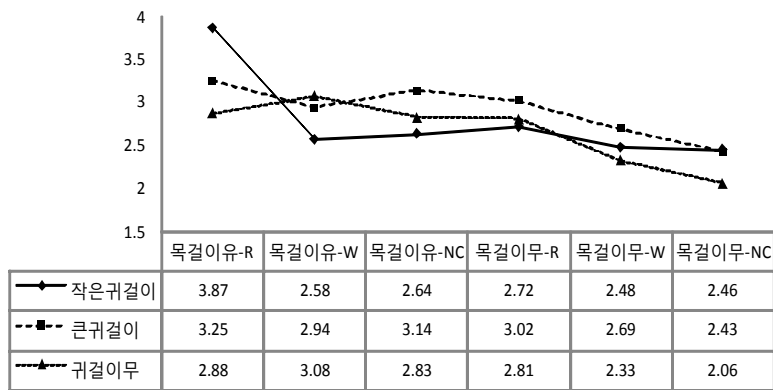


〈그림 4〉 매력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그러므로 목걸이 없이 작은 귀걸이만 착용한 모습은 가장 전문적이고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 귀걸이 없이 목걸이만 착용하였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었다. 귀걸이와 목걸이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전문성, 여성성, 매력성이 매우 낮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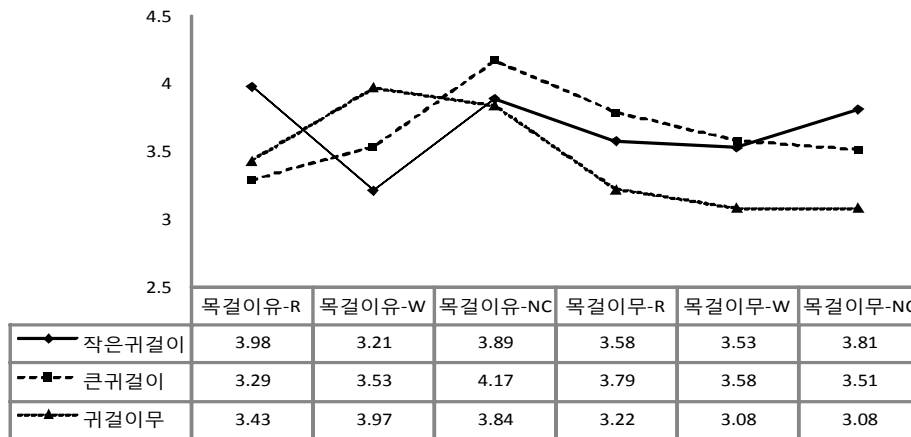
개성, 매력성은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5〉, 〈그림 6〉과 같다.

〈그림 5〉에서 개성은 목걸이 및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한 경우는 개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목걸이 및 큰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한 경우도 개성이 높았다. 즉 목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 작은 귀걸이를 했을 때가 큰 귀걸이를 했을 때보다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같은 차원에 속한 단서들이 함께 존재하면, 한 단서의 단독효과는 각각 존재할 때보다 줄어든다는 Lennon과 Miller³⁶⁾의 실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목걸이 및 빨강 코사지는 작은 귀걸이와 같이 착용하였을 때는 개성이 매우 높게 지각되었으나, 큰 귀걸이와 같이 착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감소하였다. 〈표 2〉에서 목걸이, 큰 귀걸이, 빨강 코사지는 모두 개성이 매우 높게 지각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단서가 같이 있음으로써 단서의 특출성이 적어져 각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성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작은 목걸이와 같이 착용한 경우에는 목걸이와 빨강 코사지의 개성적인 이미지가 더욱 높게 지각되어 그 효과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모든 신체 외모 단서는 인상형성 시 똑같은 가중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가중치 평균모형을 지지한 결과였다.³⁷⁾ 목걸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큰 귀걸이, 작은 귀걸이, 귀걸이 비착용의 모든 경우에서 빨강 코사지, 흰색 코사지, 코사지 비착용의 순으로 개성이 점차적으로 낮게 지각



R: 빨강 코사지, W: 흰색 코사지, NC: 코사지 무

〈그림 5〉 개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R: 빨강 코사지, W: 흰색 코사지, NC: 코사지 무

〈그림 6〉 매력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되었다. 이것은 빨강 코사지가 강렬함을 상징하는 색채의 특질에 기인한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목걸이 및 귀걸이와 코사지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목걸이 및 귀걸이와 코사지 착용은 개성 요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개성이 높게 지각된 단서들끼리의 조합은 오히려 개성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키므로 다른 차원의 단서와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개성적인 이미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에서 목걸이 및 큰 귀걸이를 하고 코사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매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목걸이 및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한 경우도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목걸이, 작은 귀걸이, 흰색 코사지를 한 경우는 매력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지 않은 경우는 흰색 코사지를 하거나 코사지를 하지 않았을 때 매력성이 매우 낮게 지각되었다. 즉, 흰색 코사지만 착용한 경우는 액세서리를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력 없고, 촌스러우며, 멋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3. 연령 및 소득 추론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연령 추론은 코사지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목걸이와 귀걸이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5.0세로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인 26.7세보다 1.7세 더 젊게 추론되었다.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약 25.1세로 작은 귀걸이(26.0세)나 큰 귀걸이(26.1세)를 착용한 경우보다 더 젊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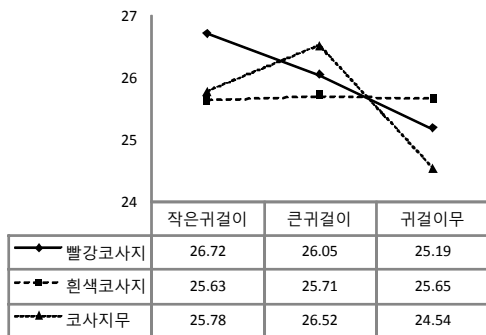
소득 추론은 귀걸이와 코사지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목걸이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2.63)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2.35)보다 소득이 더 높게 평가되었으며, 소득 항목의 급간으로 추산하여 볼 때 28만원 정도의 월 소득 차이를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목걸이가 능력 요인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³⁸⁾와 비슷한 결과였다. 또한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 착용은 예로부터 경제적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므로³⁹⁾ 소득이 더 높게 추론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

변량원	df	연령 F	소득 F	
목걸이(A)	1	45.47**	8.94**	
귀걸이(B)	2	6.63**	2.05	
코사지(C)	2	.91	1.13	
A×B	2	.49	1.29	
A×C	2	.98	.54	
B×C	4	2.43**	.31	
A×B×C	4	1.38	.67	
집단 내 오차	592			
변인	속성	N	M	M
목걸이	유	270	26.66	2.63
	무	340	25.01	2.35
귀걸이	작은	194	26.04 ^a	2.53
	큰	209	26.08 ^a	2.58
	무	207	25.12 ^b	2.33
코사지	빨강	206	25.97	2.43
	흰색	206	25.67	2.57
	무	198	25.58	2.43

**p<.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연령 추론은 귀걸이와 코사지 착용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연령 추론에 대한 귀걸이와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26.7세로 연령이 가장 높게 추론되었고, 귀걸이와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4.5세로 연령이 가장 낮게 추론되었다. 흰색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귀걸이 착용유무에 상관없이 연령이 약 25.7세 수준으로 비슷

하게 추론되었다.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코사지 비착용, 빨강 코사지, 흰색 코사지 순으로 연령이 높게 평가되었고,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흰색 코사지, 빨강 코사지, 코사지 비착용의 순으로 연령이 점차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각자로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파악하며,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여대생 610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원은 전문성, 개성, 여성성, 매력성, 귀염성의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전문성은 귀걸이와 코사지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더 전문적인 모습으로 지각되었으나, 코사지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착용한 경우보다 전문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개성은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보다 더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며,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도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매력성과 귀염성은 목걸이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목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매력성과 귀염성이 증가하였다.

전문성, 여성성, 매력성 평가는 목걸이와 귀걸이 착용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귀걸이와 목걸이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전문성, 여성성, 매력성이 매우 낮았다. 큰 귀걸이의 경우 목걸이를 하지 않은 채 큰 귀걸이만 했을 때 전문성이 높아졌으나, 작은 귀걸이는 목걸이 착용여부에 영향 받지 않고 전문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성은 목걸이와 귀걸이의 두 가지를 다 착용한 경우보다 목걸이를 하지 않은 채 귀걸이만 했을 때 더 높아졌다. 매력성과 개성은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매력성은 목걸이 및 큰 귀걸이를 하고 코사지를 하지 않

은 경우와 목걸이, 작은 귀걸이, 빨강 코사지를 한 경우에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목걸이, 작은 귀걸이, 흰색 코사지를 한 경우는 매력성이 낮은 편이었다. 전체 자극물 중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를 모두 하지 않은 모습은 매력성과 개성이 매우 낮았다. 목걸이,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한 경우는 개성이 매우 높았다.

셋째, 연령 추론은 목걸이와 귀걸이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보다 연령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연령 추론은 귀걸이와 코사지 착용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26.7세로 연령이 높게 나타났고, 귀걸이와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4.5세로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소득 추론은 목걸이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목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매력적인 특성이 증가하였으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전문적이며 개성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었고, 코사지 착용은 전문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목걸이와 귀걸이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매력성과 개성이 매우 낮으면서 연령이 낮게 지각될 수 있었다. 목걸이와 함께 흰색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매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액세서리는 전문성, 매력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연령이 높게 보일 수 있으며, 빨강 코사지 착용은 개성을 향상시켰으나 전문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므로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 적절한 액세서리 선택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 제작에 있어 모델을 젊은 여성 한명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연령대에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층의 모델을 대상으로 이미지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도 여러 연령층의 피험자로 확대하거나 성별 비교를 실시하여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액세서리의 종류와 형태를 변화시켜 이들 변인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최경원, 김세나, 유재부 (2005), *World fashion designer story*, 서울: 패션인사이트, p. 31.
- 2)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pp. 1111-1121.
- 3) 김수영, 이연희 (2010), 현대 패션 액세서리에 나타난 키치(Kitsch) 특성의 유희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 11, pp. 140-143.
- 4) Birren, F. (2012), *색채심리*, 김화중 역, 서울: 동국출판사, pp. 183-184.
- 5) 김선영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 특성: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57(4), pp. 18-29.
- 6) 박민아, 고현진 (2013), 레드 카펫 패션 스타일: 2000~2012년 아카데미 시상식과 그라미 시상식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63(2), pp. 14-28.
- 7)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 한국 성인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pp. 1225-1151; 류숙희, 최재란, 박종희 (2000), 의복색채에 의한 시각적 평가: 무채색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5, pp. 105-117.
- 8) 최수경 (2010),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추구이미지에 따른 성인여성의 액세서리 착용 및 화장 정도,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1), pp. 336-344.
- 9) 김혜경 (2008), *패션트렌드와 이미지*, 서울: 교문사, p. 4.
- 10) 조기년 (2004), 직장여성의 외적 Self Image Making 인식 정도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7-23.
- 11) 신주동, 최종명 (2008),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 *복식문화연구*, 16(2), pp. 305-318.
- 12) 최수경, *op. cit.*, pp. 336-344.
- 13) 이명희, 강승희, *op. cit.*, pp. 1111-1121.
- 14) 한명숙 (2004), 남·여 대학생의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11), pp. 1401-1414.
- 15) 이명희 (2006), 액세서리 착용이 여성의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pp. 127-138.
- 16) 신주동, 최종명, *op. cit.*, pp. 305-318.
- 17) 한명숙, *op. cit.*, pp. 1401-1414.
- 18) 윤영애 (2005), 액세서리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귀걸이 재료와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뷰티학회지*, 3(3), pp. 1-10.
- 19) 이명희, 송원영 (2011), 안경, 귀걸이, 헤어 길이와 의복 색이 20대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9(6), pp. 1221-1234.

- 20) 최수경, *op. cit.*, pp. 336-344.
- 21) 정수진, 최수경 (2009), 귀걸이, 넥라인, 헤어스타일의 코디네이션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8(2), pp. 535-545.
- 22) 백진주, 박천호, 광병화 (1995), 우리나라 꽃장식의 화료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화훼연구회지*, 4(2), pp. 63-72.
- 23) 오중은 (1995), 신세대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4.
- 24) 김일분, 유태순 (1999), 의복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복식*, 45, pp. 103-119.
- 25) 이미연 (1999),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53.
- 26) 이경림, 박숙현(2006), 의복의 조형요소에 따른 모던 이미지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30(8), pp. 1222-1233.
- 27) 정혜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 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3/4), pp. 460-471.
- 28)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pp. 139-150:
이응휘, 강경자 (1997), 원피스 드레스의 소매와 스커트 폭, 길이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8), pp. 1060-1071;
이미연, *op. cit.*, p. 64;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2000), 4가지 무채색 의복의 형태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4(8), pp. 1177-1186;
정수진, 최수경, *op. cit.*, pp. 535-545;
이명희, 송원영, *op. cit.*, pp. 1221-1234.
- 29) 이명희, *op. cit.*, pp. 127-138.
- 30) 최수경, *op. cit.*, pp. 336-344.
- 31) 윤영애, *op. cit.*, pp. 1-10.
- 32) 이명희, 송원영, *op. cit.*, pp. 1221-1234.
- 33) 이소라, 김재숙 (2008), 의복의 색과 문양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2(7), pp.1160-1168.
- 34) 조필교, 정혜민 (1998),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pp. 79-81.
- 35) 이명희, 강승희, *op. cit.*, pp. 1111-1121.
- 36) Lennon, S. J., & Miller, F. G. (1984-85), Attire, physical appearance, and first impressions: More is l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pp. 1-8.
- 37) 강혜원 외 (2012), *의상사회심리학* (제3판), 파주: 교문사, p. 323.
- 38) 이명희, 강승희, *op. cit.*, pp. 1111-1121.
- 39) 오희선 (2005), *재미있는 패션 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pp. 83-85.